

본문: 누가복음 24 장 13-35 절

제목: 은총이 죽음을 이기다.

1.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강력한 죽음을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솔직히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죽음이 주는 공포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그렇지만 여기의 많은 어린이들이 혼자 지하에 다녀 오라면 잘 못 갑니다. 어둠이 주는 공포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뭔가 튀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외양간을 지나야만 화장실이 나왔죠. 아무리 밤에 불을 켜고 간다고 하지만 외양간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화장실 속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몇 여자들이 이 소문을 처음으로 퍼뜨렸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삼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라긴 했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들이 이 내리막길을 선택한 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 죽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죄인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했어요. 너희들 까불다가는 이렇게

죽게 되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도 보았지요. 그들은 죽음이 주는 공포에 완전히 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로마라는 나라의 폭력에 주눅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최종 판결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오래 전부터 자기가 죽은 지 삼일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그냥 믿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 25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이미 말해 왔는데 왜 못 믿느냐는 거죠.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먼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책에서 시작하여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의 글들에서 자신을 말한 것들을 꼭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고 해서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되자 부활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 그리고 성경의 논리로 부활이 이해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physical 하게 만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나면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성경만 알고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길래 제자들은 구약성경의 논리로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이기에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자신의 죽음 이후의 영광과 부활을 확신한 것일까요?

3.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 없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반역과 죄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란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냐를 보여주는 것이구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는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큰 논리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첫 이야기부터 죄사함과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의 피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신 이야기가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이 때부터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의 죄와 이웃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웃의 죄로 죽음에 몰린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 받았어요. 요셉도 형들의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51 편의 말씀을 통해 밋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는지 회개합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입니다. 이삭이 죽음에서 건져진 사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 건져진 사건,

눗뱀을 들어 구원하신 사건 등 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이야기란 것이죠.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표적으로 상징해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버리시잖아요. 구약성경은 바벨론을 바다로 비유합니다(렘 51:42). 바벨론의 포로로 자신의 백성들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나요?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 장 12-14 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이런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언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 일 머물다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의 바다로 던져졌다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된 구약 성경의 논리를 믿었기에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심판하셔서 공중분해 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자신 또한 무덤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죽음보다 크고 강력하다면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왜냐면 부활은 죄의 취소이자 죽음의 취소이니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이 죄를 취소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신다면 죄의 결과인 죽음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입은 데미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상처와 데미지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죄를 아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크기에 우리는 부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이 성경의 논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이 논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범한 인간이 심판과 환난과 징계를 받고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시편과 모세와 예언자들의 책에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5.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사명을 피해 후퇴하며 도망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명을 따라 전진하며 상승하는 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을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은 죽음과 맞서 싸우는 전투의 장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 목숨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부담을 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며 부담 없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력이 아래로 끄는 대로 이끌려 걸어가면 되는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 길입니다.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곳이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그곳에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주는 위로와 안심은 매우 커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하며 넓은 길을 가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이 주는 공포 앞에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런 현실의 공포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소수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궁지에 몰리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끊임 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극적이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한복판에서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예고편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목하여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맞서는 동아리인 교회의 멤버가 되어 죽음의 기운이 판치는 어둠의 세상 속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세상 한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단점이 부활하면 나의 장점이 됩니다. 나의 불우한 환경이 부활하면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의 허영심과 헛된 자만심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건강한 자신감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쓰레기 같은 오물로 가득 찬 내인생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재창조하시고 부활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위에서 안도하며 안주하지 마시고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켜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은 그 좁은 길 가는 자들이 끝내 승리하며 이기리라는 것을 수 없이 많은 이야기로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요.